

# 전북 아·태 마스터스 개최 '만전'

무주서 14일 MTB대회 진행… 대회 밝힐 성화 무주 등 각 시군 순회 후 다시 전주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밝힐 성화가 11일 무주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익산 미륵사지에서 체화된 성화는 봉송 차량을 통해 오후 2시 20분경 무주군 무주읍 예체문화관 광장에 도착, 무주군 주지인 무주군체육회 송재호 회장 손에 들려 거리에 도열한 무주군민 3백여 명의 환영을 받으며 남대천교를 지나 군청 앞 광장 까지 이동했다. 성화는 다시 봉송차량에 실려 장수군으로 향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아·태 마스터스 MTB대회 개최지로서 성화를 맞이하는 마음이 넘나드는"며 "대회가 하나 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회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한 성화는 12일 저녁 전북도청에 인치될 예정으로 대회 개막일인 13일에는 주요 주자들에 의해 전주 시내를 달린 뒤 저녁 7시 개막식이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접두될 예정이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71개 나라 1만4천여 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종합대회로 선수들은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시·군 42개 경기장에서 25개 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밝힐 성화가 11일 무주에 도착했다.

다.

14일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MTB대회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자전거연

맹과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것으로 선수들은 이날 오전 9시 무주읍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출발해 당시 교차로와 당시 도심도삼거리로 지나 압수저수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까지 12km 구간을 2번 왕복하게 된다.

무주군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당일 무주경찰서와 119안전센터, 보건의료원 등과 협조해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수송통제, 의료서비스(구급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체육진흥팀, 신림휴양팀 관계자들이 함께 경기 코스를 돌며 도로 상태와 환경 등 안전상황을 점검했으며 무주군청 전 직원들이 무주읍내 거리로 나서 청소와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일환… 시설노후 개선·전시물 리모델링

무주군은 반디랜드 내 반디별천문과학관을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9억8천5백만 원을 투입해 시설노후 개선과 전시물을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다.

무주군에 따르면 1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지구에서부터 행성, 우주로 확대되는 스토리리인으로 구성했으며 1층에는 트리아트를 활용한 포토 존과 휴식 공간을 배치했다.

2층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발사했던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비롯해 태양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등을 게임형식의 콘텐츠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3층은 망원경과 별자리를 배우고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인



터렉티브 체험을 비롯해 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감형 영상 콘텐츠 등을 즐겨볼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주망원경이 나스미스식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고 보조관측실에는 14인치 슈미트카세그레인 망원경을 비롯한 6대의 소구경 망원경이 갖춰져 있어 태양을 비롯한 행성과 성운, 성단 등 천체관측이 가능하다.

신규 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와 디지털 전시,

실감형 영상콘텐츠 등으로 연출기법을 다양화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은 "반디별천문과학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노후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체험형 전시를 실현하는 평적인 환경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물들과 다양한 공간, 콘텐츠 등이 천체관측과 함께 무주야(夜)행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 소재 반디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2024년 국내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중 하나로 1종 공립박물관인 곤충박물관을 비롯해 수족관과 식물원,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물놀이·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 동부권 인구감소 공동대응

6개 시·군, 방안 모색·상생발전 도모 위해 워크숍 가져

진안군은 '전라북도 동부권 인구감소 공동대응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라북도 동부권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협력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소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동부권 시·군간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1~12일까지 이틀간 마이산 일원에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업무부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을 앞두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중점을 두고, 대응 방

안 마련으로 구성됐다.

또한 류성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협력단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략적인 투자계획서 작성방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인구감소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전춘성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동부권 6개 시·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담당 부서가 서로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있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동부권 지역 시군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장수군, 김염병 예방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

장수군은 장수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들을 대상으로 김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김염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은 의원,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이장, 보건지소·진료소 등으로 구성돼 소속 기관에서 김염병 예방관리 요령을 흡보하고 김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원에 통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 김염병 관리지원단을 강사로 초청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의 역할과 김시체계 중요성, 수인성 및 진드기 매개 김염병 발생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

박예순 의료지원과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엔폭스 등 해외 유입 김염병 및 신종 김염병이 늘고 있다"며 "각종 김염병이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들이 장수군의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읍 서면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무주군 무주읍 서면마을 및 강변공원이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은 전라북도가 노후된 건축물의 단장 및 용변을 보수하고 CCTV와 방범용 조명 등을 설치해 주택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무주읍 서면마을에 도비 5천8백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1억8천7백만 원을 투입해 벽지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를 설치·운영하고 안심 벽과 방범조명, 솔라 표지판, 그림자 조명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은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마을 분위기를 보다 밝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 실시

진안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은 32대이며,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관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전주시에서 검사를 해야 해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내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어 차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검사 일정은 이달 15일 상수·마령·백운면을 시작으로 16일 진안읍, 17일 동향·상전·정천면, 18일 부귀·주천면 등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방상팬 설치로 과수농가 냉해 피해 줄여

무주군이 이상 저온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사과와 복숭아 과园에 보급한 회전식 방상팬이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작년부터 과수 서리피해 및 이상기상 대응 피해예방기술 시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투입해 20농가 8.5㏊ 규모에 방상팬 29기를 설치했다.

무주군 무풍면 금령리 박 모 농가는 "올해민콤 냉해가 심하게 온 해도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방상팬을 설

치·기동한 덕에 주위 사과밭에 비해 냉해피해가 적었다"고 전했다.

무주군이 관내 농가에 보급한 회전식 방상팬은 전동모터에 연결된 날개가 선풍기처럼 바람을 일으켜 서리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팬 컨트롤로 온도를 감지해 설정 온도(2°C)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기동돼 저온 경과 시간을 단축한다.

냉기가 정체되는 지역에 특히 효과가 좋으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도 습기를 제거해 병충해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